

美.中 戰略的 競爭과 韓國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 the Republic of Korea

백범흠

2023.12. 엔쉐통 중국 칭화대 교수: “미.중이 전쟁을 택한다면 몇 년 안에 국제질서가 바뀔 것이며, 이데올로기 확장 전략을 택한다면 대리전 규모가 커져 그 구도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과학기술을 통해 경쟁한다면 현 국제질서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시진핑(중국공산당 총서기)이 2012.2. 訪美中 ‘WP’ 인터뷰에서 “태평양은 두 강대국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말하고, 오바마에게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의하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시진핑이 ‘도전장’을 내민 배경에는 미국 패권이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 2008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실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렁에 빠지자, PLA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中國夢’을 주장했다.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 신호로 해석되었다. 2017.10. 시진핑은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의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은 경제는 물론, 외교와 군사 부문에서도 본격화되었다.

2010년대 이후 세계화가 경제를 넘어 금융.제도.문화 부문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산당 체제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자, 중국은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시진핑은 3기를 시작한 2022.11. 20차 공산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새 목표로 제시했다. 공산당 영도 아래 제도와 이념 측면에서도 서구를 대신할 중국식 새 모델과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해 공산당이 멸망한 ‘소련 모델’이나 경제가 쇠락한 ‘일본 모델’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 중국은 ‘제2 차이나 쇼크(첨단 제품 홍수)’를 두려워할 정도로 제조업 생산능력이 중국에 크게 뒤진 미국의 약점을 잘 공략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도전은 우리에게 경제 부문과 함께 생명선인 서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巴士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특히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중국 해.공군력 증강을 크게 우려할 정도다. 중국은 경도 124도를 한.중 간 서해 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하며, 전투기와 함정은 물론, 해상민병대선, 어선 등을 계속 보내 서해 영해화를 노린다. 중국 전투기와 함정 등의 동해 출현도 매우 잦다. 우리 ADIZ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浮上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익을 위해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유연한 외교 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백범흠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1998년 독일연방행정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중국/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한 현실외교를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 포함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냈다. 외교관으로 베이징과 다롄에서 약 5년 간, 비엔나와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타슈켄트 등에서 약 13년 간 근무했다.

Date & Time: May 28, 2024. 12:00-13:00

Place: SNUAC Asia Square (3rd Floor)